



“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어촌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창출 기반 확충에 최선 ”

해양수산부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06년 병술년(丙戌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행운이 따르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10년째 되는 해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선진해양강국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혁신문화를 체질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달성하여 국가적으로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내고 동시에, 국민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남북수산협력력을 통해 서해평화정착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00사 100종 자매결연을 통하여 도시와 어촌의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계절별 웰빙수산물개발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근절, 자율관리어업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WTO/DDA 체제에 대비한 어업인 지원방식 선진화 등 선진어업질서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팔복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지금까지 보다도 더 어렵고 두려운 시련과 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선진해양한국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해양수산시책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중심의 수산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밀라키이트 그린 검출사고를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아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가칭)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식품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 수출국 현장 점검 강화, 정밀검사 비용 상향 등을 통하여 불량 외국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민전을 기하겠습니다. 품질인증제 확대, 심심회 판매망 확충 등을 추진하여 소비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유통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WTO/DDA 체제에 적합한 어업자원 체제를 강구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자원량 1,000만톤, 어획량 150만톤 달성을 목표로 단계별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수산자원관리법도 급년중에 제정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업인간 자발적 협약을 이행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새로운 자원관리제도도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WTO/DDA 체제에 대비한 선진국형 어업인 지원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위생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생산체제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어촌을 조성하고 어촌소득 창출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등 범국민적 해양차상 고취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분명 해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곧 도래할 해양의 세기에 선진해양한국을 기필코 실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자 운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

해양수산부장관 오 거 둔